

# 스페인의 농업 현황

김민지\*

## 1. 서론

스페인은 유럽 남서부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안도라와 프랑스, 서쪽으로는 포르투갈과 접해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프랑스에 이어 2번째로 영토가 넓은 나라로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5위를 차지한다. 스페인은 194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을 비롯하여 유럽의 대항해 시대동안 유럽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중남미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금, 은을 비롯해 감자와 같은 농작물은 여러 유럽 국가들의 주식이 되었다. 이후 스페인의 농업은 1960년까지 번성기를 누렸으나 70년대부터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규모가 감소하여 2016년 기준 전체 GDP에서 농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서비스업 67%, 제조업 16%)에 이른다. 스페인의 주요 농작물은 과채와 밀, 보리, 옥수수과 같은 곡물류이며, 와인용 포도와 올리브유 생산은 전 세계 최대생산국이다. 본고에서는 스페인의 최근 경제 현황과 농축산업 생산 및 교역 현황, 농촌지역 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스페인의 경제

### 2.1. 주요 경제 지표

스페인 경제는 2013년 마이너스(-1.7%)에서 2014년 플러스(1.4%) 성장으로 전환된 이후 2016년 3.2%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률은 정부의 법인세 (30%→25%)인하로

\* (산업연구원 연구원)

기업의 고용창출이 확대되면서 2016년 19.6%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0.2%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나타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브렉시트 리스크에 따른 경기 하강 위험을 고려하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스페인의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에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유가 하락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로 개인소비와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17년 스페인의 GDP 성장률을 3.2%로 추정하였고, 2018년에는 2.8%로 전망하였다.

<표 1>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실질 GDP 성장률	%	1.4	3.2	3.2
소비자물가상승률	%	0.2	0.5	0.2
실업률	%	24.4	22.1	19.6
무역수지	백만 유로	24,975	24,978	18,754
경상수지	백만 유로	11,244	14,725	21,476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39,494	44,378	52,666
대외채무	백만 유로	1,738,969	1,819,308	1,868,105
환율	1달러당 유로	0.7537	0.9017	0.9040

자료: 스페인통계청(INE), IMF, 스페인은행(BBVA).

스페인의 산업구조는 2016년 기준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제조업(16%), 기타(9%), 건설업(5%), 농수산업(3%)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관광업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6년 전체 GDP의 6.4%를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산업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부활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2016년 GDP의 3.5%를 차지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농수산업은 GDP의 3%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2-16년 기간 중 연평균 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타 산업 대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기준 농수산업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31억 3,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lt;표 2&gt; GDP 산업별 구성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2016)	'12-'16 연평균 성장률
서비스업	781,359	771,435	780,635	804,012	834,568	67	1.7
제조업	184,580	182,770	184,899	196,750	202,018	16	2
기타	95,685	100,421	104,069	111,621	115,509	9	5
건설업	70,815	60,143	59,229	61,234	63,551	5	-3
농수산업	26,771	28,706	28,161	30,397	31,316	3	4
합계	1,159,217	1,143,473	1,156,993	1,204,014	1,246,962	100	2

자료: 스페인통계청(INE).

## 2.2. 대외교역

2016년 스페인의 총 교역 규모는 전년대비 0.6% 증가한 5,278억 유로를 나타냈다. 그 중 수출은 전년대비 약 1.9% 증가한 2,498억 유로로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품목별로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자본재(20.3%), 자동차(17.7%), 식료품(16.9%), 화학(14.1%), 소비재(10.1%), 중간재(10.0%) 순이다. 그 중 식료품 수출은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는데 돼지고기와 올리브 수출이 각각 2%씩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 중국 돼지고기 수출이 2년 연속 2배로 성장하였고, 대미국 올리브 수출이 1.7배 확대되었다.

국가지역별 수출을 살펴보면 EU시장 수출이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유로존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수출이 증가했다. 비유로존에서는 영국이 자동차와 항공기를 중심으로 5.1% 증가하였으며,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결정 및 파운드 약세 영향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U 역외수출은 전년대비 2.5%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중남미 수출은 브라질의 불경기로 12.9% 감소했다. 반면 아시아는 1.4% 소폭 증가했다. 이 지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은 돼지고기와 와인, 올리브유 등 식료품이 전년대비 48.0% 증가했으며, 의류 등 소비재 수출증가가 처음으로 50억 유로를 넘었다.

반면 2016년 수입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2,733억 유로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본재(22.0%), 화학(15.6%), 자동차(13.7%), 소비재(12.8%), 식료품(11.8%), 중간재(6.9%) 순으로 수입 비중이 높다. 자본재는 내수 증가와 기업의 활발한 설비 투자를 배경으로, 산업 기계, 항공기부품, 전기기기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6.6%증가했다. 동 기간 자동차도

3.7% 증가하였는데 그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승용차는 12.3% 급증했다. 2016년 스페인의 식료품 수입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322억 유로를 나타냈다.

<표 3> 주요 품목별 교역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수출				수입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금액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금액	구성비	증가율
자본재 (자동차제외)	49,981	51,593	20.3	3.2	56,425	60,148	22.0	6.6
자동차	42,740	45,137	17.7	5.6	35,970	37,293	13.6	3.7
식료품	40,617	43,050	16.9	6.0	31,221	32,187	11.8	3.1
화학	36,031	36,010	14.1	-0.1	43,714	42,530	15.6	-2.7
소비재	23,720	25,703	10.1	8.4	32,793	35,078	12.8	7.0
중간재	26,116	25,510	10.0	-2.3	18,828	18,766	6.9	-0.3
광물 및 에너지	12,609	13,326	5.2	5.7	38,443	29,563	10.8	-23.1
원자재	5,529	5,623	2.2	1.7	9,203	8,772	3.2	-4.7
내구소비재	4,012	4,366	1.7	8.8	7,168	7,712	2.8	7.6
총(기타포함)	249,794	254,530	100.0	1.9	274,772	273,284	100.0	-0.5

주: EU 역외 무역 통관기준(수출은 FOB, 수입은 CIF).  
자료: 스페인 세관.

국가·지역별 수입은 EU역내에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승용차 수입이 성장을 견인했다. 비유로존은 대폴란드 수입이 같은 기간 12.2% 성장하였는데 엔진 등 자동차 부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대영국 수입은 주요 수입품인 원유의 수입이 전년대비 11.9% 급락했다.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으로부터의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세계 자원가격 하락으로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액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EU 역외 최대 수입상대국인 대중국 수입은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국내 판매 둔화에서 침체로 전환되면서 0.8% 소폭 증가했다.

&lt;표 4&gt; 주요 국가·지역별 교역

단위: 백만 유로, %

국가명	수출				수입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금액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금액	구성비	증가율
EU	161,719	168,669	66.3	4.3	154,271	155,867	57.0	1.0
유로존	125,934	131,791	51.8	4.7	122,820	124,862	45.7	1.7
프랑스	38,650	38,501	15.1	-0.4	30,063	30,371	11.1	1.0
독일	27,096	28,737	11.3	6.1	36,046	36,838	13.5	2.2
이탈리아	18,586	20,298	8.0	9.2	17,221	18,059	6.6	4.9
포르투갈	17,872	18,189	7.1	1.8	10,880	10,608	3.9	-2.5
비유로존	33,392	36,878	14.5	10.4	29,478	31,005	11.3	5.2
영국	18,220	19,153	7.5	5.1	12,691	11,184	4.1	-11.9
폴란드	4,743	4,832	1.9	1.9	4,478	5,027	1.8	12.2
터키	5,066	5,179	2.0	2.2	4,740	5,095	1.9	7.5
러시아	1,670	1,603	0.6	-4.0	3,355	3,131	1.1	-6.7
북미(NAFTA)	17,140	16,915	6.6	-1.3	17,214	17,644	6.5	2.5
미국	11,504	11,328	4.5	-1.5	12,828	13,016	4.8	1.5
멕시코	4,264	4,100	1.6	-3.9	3,404	3,326	1.2	-2.3
아프리카	16,182	16,281	6.4	0.6	23,914	20,024	7.3	-16.3
모로코	6,131	6,934	2.7	13.1	4,833	5,675	2.1	17.4
알제리	3,270	3,009	1.2	-8.0	6,506	4,525	1.7	-30.4
아시아대양주	16,001	16,220	6.4	1.4	40,932	42,252	15.5	3.2
중국	4,384	5,032	2.0	14.8	23,665	23,851	8.7	0.8
ASEAN	2,942	2,901	1.1	-1.4	6,746	7,070	2.6	4.8
일본	2,470	2,406	0.9	-2.6	3,221	3,639	1.3	13.0
한국	1,852	1,627	0.6	-12.1	2,295	2,290	0.8	-0.2
호주	1,498	1,357	0.5	-9.4	482	478	0.2	-1.0
인도	1,262	1,259	0.5	-0.2	3,100	3,463	1.3	11.7
중남미	11,100	9,669	3.8	-12.9	11,589	10,657	3.9	-8.0
브라질	2,729	2,245	0.9	-17.7	3,103	2,969	1.1	-4.3
칠레	1,370	1,388	0.5	1.3	1,407	1,396	0.5	-0.8
중동	8,853	8,351	3.3	-5.7	7,016	6,965	2.5	-0.7
걸프협력회의(GCF)	6,196	5,362	2.1	-13.5	4,854	3,993	1.5	-17.7
사우디	3,098	2,364	0.9	-23.7	3,404	3,001	1.1	-11.8
총(기타포함)	249,794	254,530	100.0	1.9	274,772	273,284	100.0	-0.5

주: 1) 아시아 대양주는 ASEAN + 6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에 홍콩 대만을 더한 값.

2) EU 역외 무역 통관 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자료: 스페인 세관.

### 2.3. 대내외투자

스페인 경제부에 따르면 2016년 대내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38.3% 증가한 264억 유로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환경이 전년대비 3.8배 증가했으며, 전체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했다. 대외 직접 투자는 2016년 전년 대비 64.1% 증가한 302억 6,400만 유로를 나타내며 호황기인 2008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6.3배 크게 증가했다. 기계·자동차 및 기타와 금융·은행·보험업도 같은 기간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편 농업·목축업·임업·어업의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전년대비 37.3% 하락한 3억 7,500억 유로를 나타냈으며 같은 기간 대외직접투자는 63.1% 하락한 1억 4,700억 유로를 기록했다.

<표 5> 업종별 대내외 직접투자

단위: 백만 유로, %

분야	대내직접투자			대외직접투자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금액	증가율
전력·가스·수도·환경	2,318	8,898	283.8	743	739	-0.6
금융·은행·보험	1,279	7,246	466.7	3,171	5,848	84.4
건설	4,247	2,857	-32.7	1,181	2,137	81.0
제조업	3,196	1,965	-38.5	1,183	7,463	530.8
기계·자동차 및 기타	1,132	1,723	52.3	1,746	6,844	291.9
식품	1,094	282	-74.2	-240	269	-
섬유·의류	182	137	-24.8	-48	-35	-
제지·출판	130	103	-20.5	-150	144	-
석유 정제·화학·플라스틱	658	-280	-	-126	241	-
유통·소매·도매	2,934	1,556	-47.0	1,184	7,296	516.4
운수·통신	838	1,289	53.8	925	3,730	303.3
부동산·기업서비스	2,762	1,198	-56.6	1,219	1,485	21.8
호텔레스토랑	322	571	77.4	99	115	16.7
농업·목축업·임업·어업	597	375	-37.3	399	147	-63.1
광업	2	-121	-	8,328	499	-94.0
총(기타포함)	19,099	26,418	38.3	18,443	20,264	64.1

자료: 스페인 경제부.

### 3. 유럽 주요국의 농축산업과의 비교

유럽연합(EU) 공식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16년 EU-15<sup>1)</sup>의 농축수산업 총생산량은 전년대비 6.1% 하락한 3,266억 유로로 2011-15년간 평균 생산량인 3,467억 유로로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의 주요원인은 EU-15 상위 농업국에 해당하는 프랑스(-6.8%), 이탈리아(-3.9%), 독일(-2.1%)이 같은 기간 농축수산업 생산이 모두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스페인의 농축산업 총생산은 EU-15 국가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2016년 기준 전년대비 2.9% 성장한 468억 유로로, EU-15의 14.3%를 차지한다. EU-15 국가 중 최대 농축수산물 생산국은 프랑스(701억 유로)이며, 스페인(468억 유로)은 독일(501억 유로)과 이탈리아(531억 유로)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유럽 주요국의 농축산업 비교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EU-15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016	'11-'15 평균	'15-'16 증감률	2016	'11-'15 평균	'15-'16 증감률	2016	'11-'15 평균	'15-'16 증감률	2016	'11-'15 평균	'15-'16 증감률	2016	'11-'15 평균	'15-'16 증감률
농축수산업 총생산	326,599	346,694	-6.1	46,807	43,293	2.9	70,073	74,832	-6.8	50,144	54,709	-2.1	53,055	54,743	-3.9
농산물 생산	166,163	175,486	-6.3	28,752	28,752	4.4	38,853	42,268	-8.5	23,540	27,098	-4.2	28,845	29,657	-5.5
축산물 생산	130,267	141,454	-6.5	16,377	16,162	0.7	24,711	26,185	-4.7	23,691	25,374	-1.9	15,098	16,349	-4.2
총부가가치	130,017	139,926	-7.8	25,497	22,438	6.3	25,440	28,783	-13.7	12,469	16,554	-3.8	30,169	30,925	-6.4
농가소득	113,735	124,654	-7.0	25,688	22,995	6.9	21,450	24,674	-15.9	9,872	14,671	-3.6	22,096	22,541	-5.2
농업생산성	26,712	28,178	-7.5	30,642	26,227	4.6	33,390	36,794	-13.0	25,265	32,663	-3.3	26,485	28,070	-8.0

자료: EUROSTAT.

1)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가입한 15개의 유럽 국가들로 유럽연합(EU)내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불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이 해당됨.

농업생산성은 스페인이 전년대비 4.6% 성장한 306억 유로를 기록한 반면, 동 기간 EU-15는 평균 7.5% 하락한 267억 유로를 나타냈다. 농업생산성은 프랑스가 전년대비 13%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이탈리아(-8.0%)와 독일(-3.3%)도 각각 하락했다.

총 부가가치는 2016년 스페인만이 전년대비 6.3% 성장한 255억 유로를 나타냈으며, 특히 프랑스의 총부가가치 증감률은 EU-15의 평균인 -7.8% 보다 낮은 -13.7%를 기록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총부가가치는 동기 전년대비 각각 6.4%, 3.8% 감소했다.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EU-15의 2016년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7% 하락한 1,137억 유로로 프랑스가 같은 기간 16% 하락한 214억 유로를 나타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같은 기간 3.6%와 5.2% 감소했다. 반면 스페인의 농가 소득은 농축산품의 생산과 수출 호조에 따라 EU-15개 국가 중 가장 높은 257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이는 EU-15 전체 농가소득의 22.6% 차지한다.

## 4. 스페인의 농축산업 현황

### 4.1. 지역별 농축산업 현황

스페인은 전체 국토면적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EU-15 회원국 중 프랑스 다음으로 높으며, 유럽 최대의 농업 국가이다. 그러나 국토 대부분이 척박한 토양이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과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갖는 남부지방이 스페인 농축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스페인의 행정구역은 17개의 자치지방(Comunidad Autónoma)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안달루시아, 카스티야 레온, 카스티야라만차, 카탈루냐 4개 지방이 스페인 농축산업 생산의 56%를(2014년) 차지한다. 2014년 기준 안달루시아 지역은 스페인 전체 농축수산업 생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2%를 나타냈다. 그 중 농산물 생산은 전년대비 18.8% 성장하며, 스페인 총 농산물 생산의 35.7%를 담당했다. 이 지역의 주요 농산물은 올리브, 목화, 사탕수수, 포도 등이다.

스페인의 지역별 농축수산업 생산은 2014년 안달루시아(15.7%)가 전년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발렌시아나(8.0%), 발레아레스제도(5.5%)에서도 전년대비 5% 이상 성장했다. 반면 마드리드(-22.5%)와 카스티야라만차(-16.0%), 카스티야 레온(-7.2),

아라곤(-7.1%)은 7~22% 크게 감소했다. 마드리드는 기타 농작물 생산이 높은 지방으로 2014년 농산물 생산이 전년대비 39.6% 크게 하락한 것이 전체 농축수산업 생산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스티야이레온과 아라곤 지방은 주요 농산물인 곡물과 포도 생산의 감소가 농축수산업 생산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표 7> 자치 지방별 농축산업 생산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농축수산업 생산			농산물 생산			축산물 생산		
	2014	'13-'14 증감률	비중 (2014)	2014	'13-'14 증감률	비중 (2014)	2014	'13-'14 증감률	비중 (2014)
안달루시아	11,073	15.7	25.2	9,124	18.8	35.7	1,652	2.6	9.9
아라곤	3,679	-7.1	8.4	1,412	-12.4	5.5	2,116	-3.7	12.7
발레아레스 제도	218	5.5	0.5	130	13.2	0.5	69	-5.7	0.4
카나리아 제도	812	-4.1	1.8	629	-1.6	2.5	135	-12.1	0.8
칸타브리아	311	3.4	0.7	78	-2.9	0.3	219	6.1	1.3
카스티야라만차	4,034	-16.0	9.2	2,470	-24.2	9.7	1,335	1.4	8.0
카스티야이레온	5,228	-7.2	11.9	2,093	-20.1	8.2	2,762	4.3	16.6
카탈루냐	4,311	-4.3	9.8	1,390	-13.2	5.4	2,783	0.0	16.7
마드리드	244	-22.5	0.6	111	-39.6	0.4	118	1.0	0.7
나바라	1,049	1.2	2.4	530	-1.3	2.1	473	4.4	2.8
발렌시아나	3,422	8.0	7.8	2,693	9.5	10.5	658	3.9	3.9
엑스트레마두라	2,073	2.6	4.7	1,092	1.6	4.3	868	5.1	5.2
갈리시아	3,594	-1.6	8.2	1,353	-5.8	5.3	2,122	1.0	12.7
라리호아	608	1.6	1.4	466	0.9	1.8	122	2.9	0.7
바스크	516	0.7	1.2	299	0.6	1.2	198	12.3	1.2
아스투리아스	512	3.6	1.2	149	-6.0	0.6	356	8.3	2.1
무르시아	2,310	-5.4	5.3	1,565	-7.0	6.1	695	-2.6	4.2
스페인 전체	43,994	-0.2	100.0	25,585	-1.2	100.0	16,682	1.4	100.0

자료: 스페인 농림부.

<표 8>의 자치 지방별 농가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자치지방 중 4개 지방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2014년 안달루시아 (22.6%), 발레아레스 제도 (38.0%), 아스투리아스(22.1%), 발렌시아(14.5%) 지방이 농축수산업 생산증가로 전년대비 15~20% 크게 성장했다. 반면, 마드리드(-41.0%), 카스티야-라만차(-26.3%), 카스티야 레온(-16.7%), 아라곤(-11.5%)은 같

은 기간 크게 하락했다.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총부가가치는 상위 고소득 4개 지역 중 3개 지역(안달루시아, 발레아레스제도, 발렌시아)은 2014년 전년대비 14~2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반면, 아스투리아스 지방이 유일하게 0.9%의 저성장을 기록했다.

<표 8> 자치 지방별 총부가가치와 농민소득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주요농작물	총부가가치			농가소득		
		2014	'13-'14 증감률	비중	2014	'13-'14 증감률	비중
안달루시아	올리브, 목화, 사탕수수, 포도	7,417	25.2	32.3	8,186	22.6	35.0
아라곤	곡물, 보리, 올리브, 포도	1,588	-11.3	6.9	1,642	-11.5	7.0
발레아레스 제도	아열대작물, 곡물, 와인, 과채	90	20.8	0.4	37	38.0	0.2
카나리아 제도	토마토, 바나나	514	-6.7	2.2	486	-8.7	2.1
칸타브리아	보리, 밀, 호밀, 수수	103	4.8	0.4	119	1.1	0.5
카스티야라만차	올리브, 과채, 와인, 치즈, 유제품	2,164	-24.0	9.4	2,073	-26.3	8.9
카스티야이레온	곡물, 와인	1,848	-16.1	8.0	1,987	-16.7	8.5
카탈루냐	과채, 쌀, 호두	1,833	-5.5	8.0	1,687	-7.5	7.2
마드리드	기타, 농작물	104	-38.4	0.5	89	-41.0	0.4
나바라	유제품, 토마토, 곡물, 포도, 옥수수	540	3.0	2.3	554	2.7	2.4
발렌시아	과채	2,139	14.6	9.3	1,957	14.5	8.4
엑스트라마두라	하몽, 올리브	995	9.7	4.3	1,204	3.5	5.2
갈리시아	감자, 양파, 토마토, 곡물, 옥수수	1,719	1.4	7.5	1,474	1.9	6.3
라리오하	옥수수, 과일, 쌀	399	2.2	1.7	354	1.2	1.5
바스크	곡물, 포도, 과채	289	5.1	1.3	269	5.8	1.2
아스투리아스	기타 농작물	163	0.9	0.7	178	22.1	0.8
무르시아	과채	1,093	-9.1	4.8	1,066	-8.8	4.6
스페인 전체		22,996	1.7	100.0	23,361	0.9	100.0

자료: 스페인 농림부.

## 4.2. 주요 농축산물 생산 추이

2015년 스페인의 전체 농축산물 생산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455억 유로를 나타냈다. 이 중 약 55%가 농산물, 36%는 축산물에 해당한다.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은 과채류이다. 2015년 기준 과일과 채소가 농축산물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밀, 보리, 옥수수과 같은 곡물 생산이 7.9%를 차지한다. 와인(2.2%)과 올리브유(3.9%)는 전체 농축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주요 농산물에 해당한다. 스페인 농림부의 통계에 따르면<sup>2)</sup> 2015년 기준 총 재배면적 7,728만 헥타르 중 곡류(26%), 채소(22.1%), 와인용 포도(7.4%), 올리브유(1.8%)가 총 재배면적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채소와 올리브유 재배면적이 2015년 전년대비 16.9%와 66%로 크게 증가했다.

농산물의 최근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채소 생산이 2015년 기준 전년대비 19.4% 성장한 90억 유로를 나타냈으며, 이어 과일이 전년대비 18.8%, 감자가 18.2% 성장했다. 반면, 올리브유는 전년대비 33.9% 크게 하락하였다. 스페인 농림부는 2016년 주요농산품 중 올리브유(61.3%), 곡물(5.2%), 감자(15.7%), 과일(3.8%)이 전년대비 생산이 증가한 반면 채소 생산은 전년대비 9.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축산품의 경우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돼지(12.4%)의 생산량이 2015년 전년대비 6.3% 하락한 56억 유로를 나타냈다. 이어 조류(닭, 오리)와 우유 생산도 같은 기간 3.0%와 5.2%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양, 염소(20.7%), 말(3.6%), 달걀(4.2%) 생산은 전년대비 3~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정부는 2016년 축산물 생산은 돼지 생산이 전년대비 5.9% 증가하면서 전체 축산물의 생산 증가를 주도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6년 전체 농축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2.2% 성장한 465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 Ministerio de Agricultura y Pesca, Alimentacion y Medio Ambiente. 2016. *Inforem Anual de Indicadores: Agricultura, Pesca, Alimentacion y Medio Ambiente 2016*.

<표 9> 주요 농축산물 생산

단위: 백만 유로, %

	2014	2015	2016	'14-'15 증감률	비중(2015)
농산물	22,855	24,883	25,838	8.9	54.7
곡물	3,587	3,607	3,796	0.6	7.9
채소	7,512	8,968	8,143	19.4	19.7
감자	484	572	662	18.2	1.3
과일	7,442	8,841	9,180	18.8	19.4
와인	1,012	1,002	1,065	-1.0	2.2
올리브유	2,688	1,777	2,867	-33.9	3.9
기타	130	116	125	-10.8	0.3
축산물	16,682	16,265	16,318	-2.5	35.8
소	2,718	2,718	2,765	0.0	6.0
돼지	6,019	5,639	5,977	-6.3	12.4
말	55	57	57	3.6	0.1
양, 염소	938	1,132	1,099	20.7	2.5
조류	2,381	2,309	2,150	-3.0	5.1
기타	426	396	378	-7.0	1
우유	3,184	3,017	2,909	-5.2	6.6
달걀	961	1,001	983	4.2	2.2
농축산업 전체	43,994	45,491	46,487	3.4	100.0

주: 2016년 예측치.  
 자료: 스페인 농림부.

#### 4.3. 주요 농축산물 교역 추이

스페인 농축산물의 전체 교역 규모는 2015년 744억 유로로 전년대비 8.8% 성장했다. 그 중 수출은 전년대비 8.7% 성장한 421억 유로를 수입은 9.0% 성장한 323억 유로를 나타냈다. 수출품목 중 달걀(42.9%)과 감자(42.4%)가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를 주도했으며, 양, 염소(17.5%), 과일(15.8%), 채소(12.2%)도 호조세를 시현했다. 반면 수입품목 중에는 올리브유(312.4%) 수입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2016년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4.8% 증가한 779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감자(30.9%), 올리브유(18.6%), 돼지(16.3%)의 수출 호조가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특히, 올리브유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면

서 18.6% 상승한 34억 유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와인의 경우 수입이 전년대비 230% 성장한 2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주요 농축산물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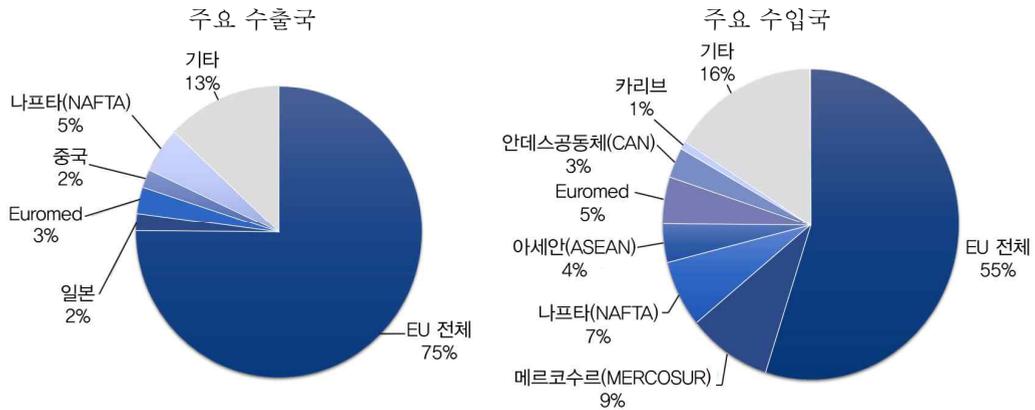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

	2014		2015		2016		'14-'15 증감률		비중(201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농산물	18,210	5,726	19,960	7,004	20,807	7,076	9.6	22.3	47.5	21.7
곡물	618	2,649	665	2,950	592	2,881	7.6	11.4	1.6	9.1
채소	4,729	557	5,304	690	5,701	733	12.2	23.9	12.6	2.1
감자	66	151	94	161	123	229	42.4	6.6	0.2	0.5
과일	7,097	2,058	8,219	2,516	8,182	2,688	15.8	22.3	19.5	7.8
와인	2,764	158	2,841	56	2,843	185	2.8	-64.6	6.8	0.2
올리브유	2,936	153	2,837	631	3,366	360	-3.4	312.4	6.7	2.0
축산물	5,553	2,421	6,096	2,445	6,758	2,420	9.8	1.0	14.5	7.6
소	631	851	814	847	865	915	29.0	-0.5	1.9	2.6
돼지	3,756	451	4,023	504	4,680	466	7.1	11.8	9.6	1.6
양, 염소	234	71	275	82	307	73	17.5	15.5	0.7	0.3
조류	303	516	324	569	320	574	6.9	10.3	0.8	1.8
기타	115	61	124	68	127	68	7.8	11.5	0.3	0.2
우유	358	404	313	303	290	240	-12.6	-25.0	0.7	0.9
달걀	156	67	223	72	169	84	42.9	7.5	0.5	0.2
농축산물 전체	38,688	29,636	42,058	32,293	44,542	33,373	8.7	9.0		

주: 2016년 예측치.  
자료: 스페인 경제부.

스페인 농축산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출입 모두 EU 역내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그 중 상위 수출국은 EU 역내의 경우 2015년 기준 프랑스(23%), 독일(16%), 포르투갈(13%)순으로 나타나며, EU 역외의 경우 나프타(20%), 중국(8%), 일본(6%)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수입국은 EU 역내에서는 프랑스(27%), 독일(15%), 네덜란드(12%)순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EU역외에서는 메르코수르(20%), 나프타(15%), 아세안(9%)으로부터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주요 교역국(2015년)



자료 : 스페인 농림부.

#### 4.4. 농촌지역개발 정책

스페인 정부는 농촌지역개발을 위해 2014-’20까지 유럽농촌지역개발기금(Fondo Europeo Agrícola de Desarrollo Rural, FEADER)과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을 17개 자치지방에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농촌지역개발전략과 스페인의 농업정책의 연장선에서 중장기 농촌개발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3가지이다. 첫째, 농업의 경쟁력 향상, 둘째, 기후변화 대응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확보, 셋째,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해 농촌경제와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이다. 이를 위해 스페인 정부는 2015년 2월 농촌개발 관련 기구를 승인하고, 농촌개발프로그램(Programas de Desarrollo Rural, PDRs, 2014-’20)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분야는 ① 농업경영 자문 ②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③ 유기농 농업 ④ 자연구역 개발제재 ⑤ 산림 보호 ⑥ 농업수출촉진투자 ⑦ 관개 공공시설 ⑧ 농산물 상업화 ⑨ 젊은 농업인 창출 등이다.

FEADER의 2014-2020년간 스페인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투자액은 81억 1,400만 유로이며, 같은 기간 스페인 정부의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공공부문의 예산은 120억 1,000만 유로로 전체 공공부문 예산의 67%에 해당한다.

아래 <표 11>은 스페인 17개 자치 지방에 2014-20년 간 FEADER와 스페인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예산 현황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예산이 안달루시아, 카스티야 라만차, 카스티야 이 레온 지방에 집중 배정되어 있다. 이 지역들의 특징은 스페인의 주요 수출품인 올리브와 포도 생산이 집중되어 있다.

&lt;표 11&gt; 자치 지방별 농촌지역개발 예산(2014-20년)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유럽 기금 (FEADER)	비중	스페인 정부 예산	비중
안달루시아	1,856	22.9	2,377	19.7
아라곤	463	5.7	730	6.0
아스투리아스	316	3.9	481	4.0
발레아레스	60	0.7	143	1.2
카나리아스	154	1.9	181	1.5
칸타브리아	93	1.1	141	1.2
카탈루냐	347	4.3	807	6.7
카스티야 라만차	1,135	14.0	1,469	12.2
카스티야 이 레온	939	11.6	1,599	13.2
엑스트레마두라	861	10.6	1,148	9.5
갈리시아	883	10.9	1,177	9.7
마드리드	76	0.9	119	1.0
무르시아	216	2.7	343	2.8
나바라	136	1.7	319	2.6
바스코	86	1.1	137	1.1
라리오하	70	0.9	140	1.2
발렌시아나	198	2.4	371	3.1
총계	1,886	97.2	11,682	96.6
국가프로그램	228	2.8	411	3.4
국가총계	8,114	100	12,093	100

자료: 스페인 농림부.

FEADER와 스페인 정부는 농촌지역개발을 위해 아래 6대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6대 분야 중 '농림업과 연관된 자연생태계 보호와 개선(P4)'이 44억 유로로 스페인 정부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6대 분야와 관련하여 자치 지방별 예산 배정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의 농산품 수출 가능성 및 농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P2)' 관련해서는 칸타브리아와 라리오하 지역의 예산이 40%를 초과하는 반면, 카스티야라만차와 발렌시아나 지역은 15%를 넘지 못한다. '농산품 상업화, 축산품 품질향상, 농업분야의 위험요소 관리 등을 위한 식량공급시설 관리 기구 구축(P3)'에 관한 예산은 바스크 지방이 20% 이상을 확보한 반면 나바라와 카나리아스는 3% 미만으로 배정되었다. 예산상 가장 많은 재원이 배정된 P4와 관련해서는 칸타브리아와 엑스트레마두라가 45% 이상을 차지한다. '농업, 식량산업, 임업의 기후변화 적응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장려 및 자원 효율성 촉진(P5)과 관련해서는 엑스트레마두라, 아라곤, 카탈루냐 지역이 7% 이하의 재원을 배정받았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경제 발전 및 빈곤감소와 사회 통합(P6)'은 카나리아스 지역이 27%의 정부 지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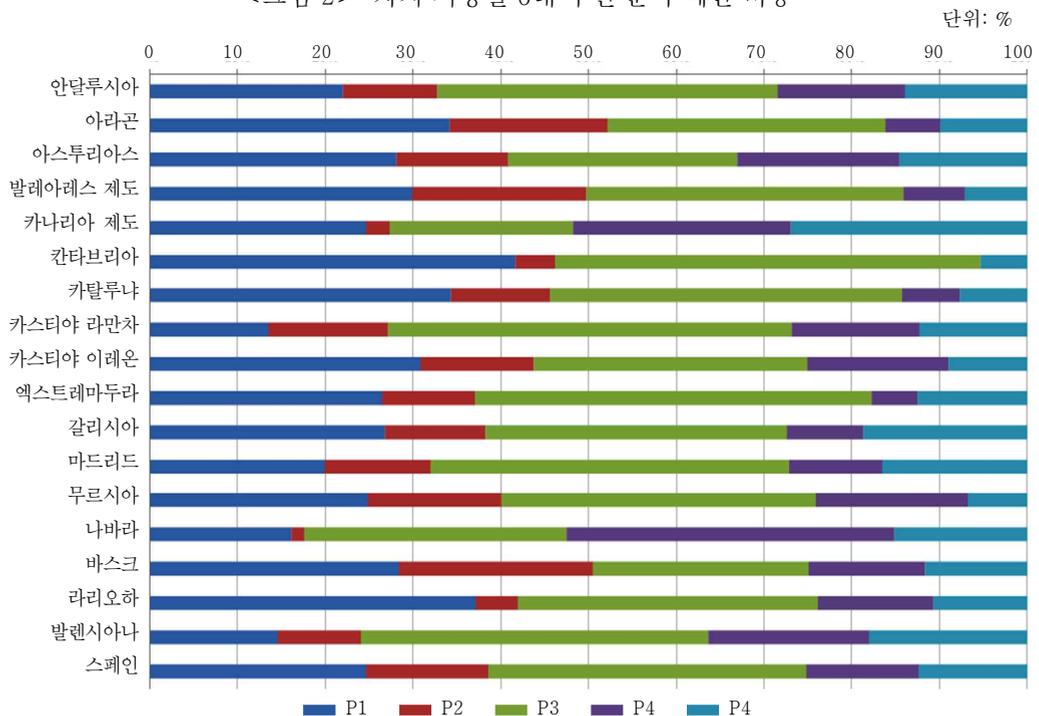
<표 12> 농촌지역개발 지원 6대 분야 및 예산(2014-20년)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우선순위 분야	FEADER	스페인 정부예산
P1	농촌지역의 농림업의 지식과 혁신 이전	-	-
P2	모든 지역의 농산품 수출 가능성 및 농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	1,969	2,984
P3	농산품 상업화, 축산품 품질향상, 농업분야의 위험요소 관리를 위한 식량공급사슬 관리 기구 설립	1,065	1,685
P4	농림업과 연관된 자연생태계 보호와 개선	2,962	4,384
P5	농업, 식량산업, 임업의 기후변화 적응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장려 및 자원 효율성 촉진	984	1,545
P6	농촌지역의 경제 발전 및 빈곤감소와 사회통합	1,135	1,496
총계		8,114	12,093

자료: 스페인 농림부.

<그림 2> 자치 지방별 6대 우선 분야 예산 비중



자료: 스페인 농림부.

## 5. 결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의 거품 붕괴와 함께 내수 경제가 극심한 침체시기를 겪은 스페인의 경제는 2013년 말부터 회복세를 시현하며 전 산업에 걸쳐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농축산업도 마찬가지로 2009년 225억 유로였던 생산량이 2016년 285억 유로로 26.7% 성장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출도 265억 유로에서 445억 유로로 67.9% 증가했다. 농축산업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비옥한 토양과 지중해성 기후의 전통적인 환경 요인과 농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집중지원에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상존한다. 2016년 기준 국내 농축산업 총 생산량은 465억 유로이며, 수입량은 334억 유로이다. 이를 합친 국내소비액은 799억 유로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수출액이 445억 유로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농축산물 소비액 대비 수출 비중은 55.7% 해당한다. 따라서 수출이 국내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교역구조가 대외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교역 상대국의 절반 이상이 EU역내에 집중되어 있어 EU내 상위 농업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점은 스페인 정부가 아시아 지역 시장을 확대하는 주요요인 이기도 하다. 젊은 농업인의 부족은 스페인 농축산업 발전에 또 다른 제약요인이다. 2016년 기준 스페인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15~64세 인구는 2012년 이후 연평균 0.6%씩 감소하고 있어 같은 기간 전체인구 하락률인 0.3%보다 높다. 농촌의 농업인 연령은 젊은 층들의 도시유입 증가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다.

스페인 농축산업은 국내 경기회복과 함께 생산과 수출에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농림부는 2017년 스페인 농수산물 수출이 최초로 500억 유로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수출의 18.1%를 차지한다.<sup>3)</sup> 향후 스페인의 농축산물 수출은 EU 역내에서는 과일과 채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EU 역외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수요 증가로 올리브와 돼지고기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3) (<http://www.mapama.gob.es/es/prensa/ultimas-noticias/las-exportaciones-espa%C3%B1olas-de-productos-agroalimentarios-baten-un-record-hist%C3%B3rico-al-superar-por-primera-vez-los-50.000-millones-de-euros/tcm:30-444736>)(검색일:2018.06.30.)

## 참고문헌

Ministerio de Agricultura y Pesca, Alimentacion y Medio Ambiente. 2016. *AGRICULTURA Y PESCA, ALIMENTACIÓN Y MEDIO AMBIENTE EN ESPAÑA 2016*.

Ministerio de Agricultura y Pesca, Alimentacion y Medio Ambiente. 2016. *Inforem Anual de Indicadores: Agricultura, Pesca, Alimentacion y Medio Ambiente 2016*.

Ministerio de Economía, Industria y Competitividad 2016. *La Balanza Comercial Agroalimentaria en 2016*.

## 참고사이트

스페인 농림부([www.mapama.gob.es](http://www.mapama.gob.es))

스페인 통계청([www.ine.es](http://www.ine.es))

스페인 경제부([www.mineco.gob.es](http://www.mineco.gob.es))

스페인 세관([www.agenciatributaria.es](http://www.agenciatributaria.es))

국제통화기금([www.IMF.org](http://www.IMF.org))

스페인 은행([www.bbva.es](http://www.bbva.es))